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단군과 동명왕의 넋이 깃든 송령전

기자는 사회과학원의 리일심연구사와 함께 송령전을 찾아 취재길을 이어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평양의 거리를 걷는 기분이 더없이 좋았다.

이속하여 기자는 평양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장대제언덕에 도착하였다. 송령전은 장대제언덕에 자리잡고있는 평양학생소년궁전 옆에 서있었다.

송령전은 본래 본정과 동쪽행랑 3칸, 서쪽행랑 2칸, 대문 3칸과 동서좌우에 달린 좁은 문각 1칸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송령전에서는 짝수 즉 4칸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군과 동명왕을 함께 제사하게 되는 건물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단군제단은 서쪽 2칸에, 동명왕제단은 동쪽 2칸에 동등하게 갈라놓은에서 생긴것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청자불고기모양주전자

이 주전자는 형상수법이 독특하고 형태 또한 특이하며 어두운 담록색계열의 회청색유약이 고르게 입혀져 있어 자기의 품위를 한결 돋보이게 한다.

청자불고기모양주전자는 물고기를 형상하여 만든 고려시기의 푸른자기주전자이다. 이 주전자는 높이가 24.3cm, 직경이 13.5cm이며 물고기모양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탁구명수 김송이



김송이선수는 2016년에 있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탁구 여자단식경기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파문을 일으켰다.

김송이선수는 2016년에 있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탁구 여자단식경기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파문을 일으켰다.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작성도 전경연

공화국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프로그램작성도 전경연 《개척자-2021》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이번 경연에는 전국의 대학, 제1중학교와 고급중학교, 초급중학교 학생들과 교육, 과학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 정보기술부문에 일하고있는 근로자들, 프로그램애호가들을 비롯하여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가하였다.

경연에서는 단순한 문제들로부터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제시되고있으며 응시자들은 제시된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램작성언어를 리용하여 제출하는데 언어는 자제로 선택하고있다.

이번 경연은 나라의 정보기술발전을 추동하는 계기로, 하루빨리 세계를 앞서 나갈 프로그램개발능력을 지닌 경쟁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다.



역사일화 췌기에 대한 생각을 하던중에

조선봉건왕조시기 재능있는 과학자, 발명가, 출판인쇄기술자인 리천(1376~1451년)이 세종왕의 령을 받고 새 활자인 《경자자》를 발명하였을 때였다.

리천에게는 발방아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어렸을 때 외가에서 보았던 물레방아생각이 났다.

간 리천은 《췌기, 췌기다!》하며 불쑥 일어났다. 조판할 때 황밀을 쓰지 않고 활자를 세운 다음 그 사이에 췌기지를 하여 활자들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면 더 많은 책을 찍을수 있을것같았다.

사화

보쌈김치 (2)

그림 김윤일

《오냐, 맛이 잘 들었구나. 작년것보다 낫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입안에 든 김치를 몇번 씹어보더니 《배추도 만만하고 류다른 향기에 가슴속이 다 시원해지는구나!》 하고 칭찬하였다.

그후부터 고분이가 담근 김치는 모양도 류다르고 맛도 류다르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앓는 사람이 입맛 잃은 사람이 생기면 고분이네 보쌈김치를 보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이었다. 반반하게 차려입은 한 사나이가 고분이를 찾아왔다. 고분이의 속마음을 넘겨짚은듯 그 사람은 비좁은 행랑이라도 한칸 마련해줄터이니 어머니를 모시고가서 봉양하라고 하였다.

고 길게 누운 통수산밀 팔짜기는 물이 맑고 고옥한데다가 수렴이 울창하여 피서지로, 유흥터로 이름난 곳이다.

《음식맛은 너의 손맛이 란 말이 있으니 네가 부엌일을 맡아하면 우리집 음식 맛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다했던것이고 더욱이 내가 다했는 김치는 천하일미라 하는데 한번 재간을 부려서 소문 내보자.》



이것이 이 집 주인행랑이 고분이에게 한 첫말이었다. 그 말의 뜻인즉 고분이가 당근은 보쌈김치로 돈벌이를 크게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늘 마음씩어왔으나 이제는 그런데 마음스지 않아도 되었다.

늘 쓰던 우거지배추대신에 허연 비계같은 통배추와 방치같은 무우에다 마늘, 생강, 백하짓과 사과, 배, 밤, 대추, 은행... 없는것이 없었다.

보쌈의 크기도 넓은 잎, 좁은 잎에 크기도 싸고 작게도 싸서 깨내 쓰기 편리하게 하였으며 크고 깊은 오지독 대어섯개가 넘쳐나게 해놓고 두툽한 버질방석뚜껑을 꼭 덮어서 광방에 주런이 세워놓은 후 북대기를 덮어 찬바람을 막아주었다.

아마, 무슨 바람이 불어 한양에 갇힌 대감님행차를 송도 막바지길 흥동가로 등등 떠밀어왔나? 주인행랑이 쥘신도 발에 제대로 꿰지 못한채 대문간에 나가 대감행차의 전배한 안마당 서중다, 방을 낸다 하며 야단벽석을 벌려놓았다.

인기있는 체육도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

공화국에서 체육도서들과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이 새로 출판행되어 많은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모으며 애독되고있다. 도서 《누구나 배울수 있는 풍구》는 풍구기초기술, 풍구에서 1대1공격기술, 풍구에서 결합공격기술 등의 장체제로 구성되었으며 재치성과 민첩성, 속도와 인내력을 키워주는 풍구의 29가지 기초기술동작으로부터 시작하여 공격과 방어 등의 경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작수행과정들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소개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넋이 깃든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에는 민요 《바다의 노래》도 있다. 이 노래는 세간 파도를 헤가르며 조국기대풍을 마련해가는 어로공들의 근면한 로동생활과 그 속에서 꽃피어나는 그들의 락천적인 모습을 반영한 로동민요이다.

같은 여러가지 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생동하면서 세련된 시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노래의 선율은 반조저리장단의 밝고 흥겨운 반주로 하여 강한 율동성을 띤다. 조종수로 된 가사와 결합되어 전개되는 선율은 마치 푸른 파도 출렁이는 바다로 나가는듯 한 생동한 인상을 안겨준다.



민요해설 《바다의 노래》

제목이 《바다의 노래》로 고쳐졌다. 민요는 세계의 부분으로 구성된 비교적 규모가 큰 성악작품이다. 가사에서 특징적인것은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어로공들의 투쟁을 매우 생동적이면서도 진실하게 노래한것이다.

가사에서 특징적인것은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어로공들의 투쟁을 매우 생동적이면서도 진실하게 노래한것이다. 또한 대구와 반복과

겨울철에 건강을 유지하려면

겨울에는 피부가 줄어지고 땀샘과 피질이 좁아져 피순환과 물질대사기능에 장애를 준다. 호흡기계통과 심장혈관계통 등 여러 계통의 기능도 낮아진다.

겨울철에는 방안의 습도를 약간 높이는것이 좋으며 더운 음료를 자주 마시는것이 좋다. 음료에서 나오는 더운 김은 입안점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호흡기계통이 건조해지는것을 방지하며 병전염성을 높여준다.

속담과 뜻

◆ 한번 보면 조면이요 두 번 보면 구면이다. 불인성이 아주 좋아서 사람을 잘 사귀는것을 이르는 말.

◆ 노숙이 방지죽을. 매우 심하게 노숙을 부리는 모양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